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8년 10월 15일

vol. 177

주요 소식

제6차 중소벤처기업 현장소통마당 행사 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기대



지난 9월 13일 우리 회사 본사 4층 교육장에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소통마당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역 중소기업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소통마당은 32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경제 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진행되는 현장 행보행사이다. 이날 열린 제 6차 행사에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종래 청장 및 유관기관 기관장, 사하구기업발전 협의회 최금식 회장 및 임원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정책보고회, 기업 간담회, 소통마당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소기업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환경변화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이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석특별자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금식 회장(사하구기업발전 협의회 회장 겸)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널리 홍보되지 못하여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라며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언급하는 한편, “오늘 나누었던 대화들이 탁상공론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원 혜택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바람을 전하였다. 이에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현장소통마당이 지역기업과의 긴밀한 소통 및 공감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청에서 앞장 서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다섯 번의 중소벤처기업 현장소통마당 행사를 통해 총 37건의 애로사항이 발굴되었으며, 이 중 28건이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되었다. 나머지 9건 역시 본부 및 관련부처에 규제로 건의하는 등 정책 반영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정부정책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본래의 목적을 다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 지원으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회사 소식

최금식 회장,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신임 주한인도대사 면담



최금식 회장(메이크인 인디아 코리아 회장 겸)이 지난 9월 14일 부산상공회의소를 공식 예방한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갑준 상근부회장, 정덕민 부산인도명예총영사가 함께했다.

란가나탄 신임 주한인도대사는 1994년 인도 외무부에 입부한 이후 터키 대사관, 인도 외무부 대외협력, 산업통상과 양곤 주재 인도대사관에서 근무한 전문 외교관이다. 국제 교역에 정통한 란가나탄 대사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며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와 부산 경제계의 산업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는 2010년 인도 뭄바이의 봄베이상회의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해마다 인도 주요 산업도시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인도시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부산상의 및 부산기업의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기며, 향후 부산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저녁 해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2018 사랑-인도 문화 축제(SARANG Festival of India 2018)’의 일환으로 열린 인도영화제에도 함께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으로도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랑-인도 문화 축제’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지난 2015년 시작된 주한인도대사관의 연중 최대 행사로, 음악, 춤, 미술, 영화, 음식과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힌디어로 ‘다채로운’, ‘아름다운’을 뜻하기도 하는 행사명 ‘사랑(Sarang)’처럼 두 국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사회공헌

선재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최금식 회장이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선재장학재단'은 지난 9월 22일 본사에서 2018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교육 소외 계층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선재장학재단'은 최금식 회장이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최금식 회장을 비롯하여 선재장학재단 이사과 감사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행사를 빛내어주었다.

이날 장학금 수상자는 한림중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초부터 말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선재장학재단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정되었다. 선재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4명과 고등학생 9명은 오전 10시경 본사를 찾아와 홍보실을 둘러보며 회사 소개를 받고 의전실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은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 후 최금식 선재장학재단 이사장의 환영인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에는 한림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였다. 선재장학재단의 지원으로 2박 3일간 서울대학교 및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한 학생들은 앞선 교육체계 및 직업 현장을 누비며 진로탐색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선재장학재단은 장학활동을 비롯하여 매년 '진로체험활동', '과학현장 체험학습', '초등학교 캠프',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체험활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매년 사업실적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재단의 활동 사항들을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상세한 재단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선재장학재단의 출범과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려는 우리 회사의 노력이 만들어낸 유의미한 결과이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미래세대를 키워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 회사의 의미 있는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납품

두산 Lube Oil Supply System



우리 회사는 올해 1월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LOS(LUBE OIL SUPPLY SYSTEM)를 9월 19일 마산항으로 납품 완료하였다. 해당 제품은 이집트 카이로, 애즈슈트 지역 화력발전소의 터빈에 공급되는 윤활유 공급 장치로서 '구조제작 ▶ 도장 ▶ 의장품 설치 ▶ LEAK TEST ▶ L/O 충유 ▶ 시운전 ▶ PACKING' 과정을 거쳐 최종 납품되었다.

이번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대형발전소에 처음 공급하는 제품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전 분야의 제품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없었던 만큼, 납기일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청의 걱정이 컸다. 실제로 원자재 및 구매품부터 조선 분야의 스펙과는 상이한 것이 많았고, 검사 표준 미비로 인하여 시운전 때에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문제를 겪었다. 이처럼 수행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회사의 담당자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는 두산 측과 가진 수차례의 미팅 및 기술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번 수주 건은 1년여 동안의 영업 과정과 수주 후의 만만찮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발전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경을 딛고 납품일에 맞추어 무사히 완료함으로써 담당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이번 건 수행으로 발전 분야 실적이 쌓였다는 점, 관련 유사 제품 수주 시 시운전 PROCESS를 정립한 만큼 차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조선 분야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향후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발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발전 분야의 제품을 직접 수행한 이번 건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향후 국내 대형 발전소 건설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는 이러한 유의미한 경험들이 백년기업 선보를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

오세란 박사의 직장에절 및 비즈니스 매너교육 진행



지난 9월 직장에절 및 비즈니스 매너교육을 주제로 한 오세란 교수의 강의가 총 2차에 걸쳐 열렸다. 9월 17일 본사 4층 교육장에서 대대 1, 2, 3공장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강의가, 9월 20일 구평 1공장에서 선보유니텍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강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비즈니스 관계 예절 및 소통강의 전문가인 오세란 박사는 먼저 '예절'의 출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예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직장에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덧붙여 직장인 59.3%가 업무보다 사내 대인관계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며,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였다.

오 박사는 "직장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실현하고 자아성취를 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직장에서의 예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직원들 간에 예의 있는 행동은 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 일터에

서 보람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관점을 일터에서 삶터로 전환해보십시오"라고 전하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경영지원 이윤혜 사원은 본사에서 열린 강의 참가 후 "이번 강의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며 쉽게 간과하게 되는 에티켓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선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 내 에티켓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선보 패밀리가 더불어 행복한 회사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문

희망이음프로젝트 대학생 기업탐방단



9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업의 실정을 지역 청년 및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와 우수기업의 채용을 연계하는 '2018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지역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생들은 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탐방해보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일자리

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회사 역시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 마련하는 해당 행사를 통해 매년 지역인재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소개받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다대동 본사에 도착한 방문단은 홍보관 및 관리직·설계부 사무실을 둘러보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어 의전실에서 사업기획부 최지영 사원의 소개로 선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기획부 김청옥 상무와 함께하는 '임원과 대화' 일정을 진행하였다. 김청옥 상무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신이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취업도 미래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이날 일정은 구평1 공장 공장견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대학생 홍보단인 '희망이음 서포터즈'는 현재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 총 16개 지역에서 팀을 운영 중이다.

사내복지

직원 격려의 날 행사 마련



10월의 첫날이자 추석 연휴 후 첫 출근일인 10월 1일, 각 공장은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게 하루를 열었다. 최급식 회장을 비롯하여 각 공장장 및 임원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여 악수를 하며 출근인사를 건네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파이팅!" 밝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답하는 현장에서는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열기가 넘쳤다.

이처럼 우리 회사는 매 명절과 신년에 '직원 격려의 날' 행사를 마련하여 임원들이 직접 명절 연휴 끝에 첫 출근하는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연휴 동안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고 한 마음으로 파이팅을 다짐하는 우리 회사의 전통이다. 서로 눈을 맞추어 웃으며 인사하고 짧게나마 안부를 묻는 등 스킨십을 하며 임직원들은 유대감을 쌓아간다.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회사 차원의 작은 노력들이 선보인 각자를 선보패밀리로 묶어주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건강

걷기 운동 효과 높이기

걷기 좋은 계절. 집 주위의 작은 공원도, 바닷가를 낀 해변 길, 나지막한 산길도 가볍게 걷는 사람들도 넘쳐난다. 누구나 쉽게 걷지만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사실. 걷기의 효과를 높여주는 세 가지 비법을 소개한다.

✓ 체크 Point 1 근력운동으로 기본 체력 기르기

다리에 힘이 없으면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쉽지 않다. 얼마 걷지도 않아 쉽게 지치고, 흔히 '다리에 알이 땀다'는 근육통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본격적인 걷기 운동 전 다리 근력을 키워주는 하체 근력운동을 통해 다리 힘을 기르도록 한다. 2주 과정으로 하체강화 운동인 스쿼드, 전신운동인 플랭크 등을 병행하여 근력을 기른다.

✓ 체크 Point 2 인터벌 걷기

걷기 보통 짧은 거리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길고 어려운 코스를 시작하면 체력에 지쳐 포기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30분 코스를 1~2주 정도 걸으며 익숙해진 뒤에는 걷기 방법을 조금 바꾸어본다. 전체 코스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시간을 정해두고 걷는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가령, 전체 30분 중 5분은 빠르게 걷고 3분은 평상시 속도대로 걷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인터벌 걷기를 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빠르게 전환되며 전신에 혈액이 잘 공급되고 심폐기능도 올라간다. 같은 시간을 걸어도 운동효과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 체크 Point 3 근력운동으로 마무리운동 하기

인터벌 걷기도 익숙해졌다면 근력운동을 병행한다. 이때에는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스쿼드나 플랭크 대신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추천한다. 피트니스 센터 등을 이용하고 여의치 않다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건, 줄넘기 등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다.

✓ 지겨운 걷기를 함께 걷기 앱

- 
· 캐시워크
 걷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앱. 100걸음 당 1캐시 적립. 모인 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 계단왕
 계단 오르기를 게임처럼 할 수 있는 앱.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 성취감을 고취시킨다.
- 
· 워크온
 걷기는 물론 생활패턴까지 체크해주는 앱. 걸음 수, 소모 칼로리, 이동거리 등을 계산해주어 정확한 패턴 측정이 가능하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본사**
 이석형(10.08) 문몽영(10.10)
 정지훈(10.29) 문중현(음10.23)
- ☑ 1공장**
 정덕희(10.02) 한승진(10.07)
 이창호(10.19) 윤희동(10.22)
- ☑ 2공장**
 조영록(10.10) 하 김(10.28)
 오진우(10.29)
- ☑ 3공장**
 이현수(10.25) 권태영(10.31)
- ☑ 구평공장**
 이도현(10.03) 알 렉(10.07)
 단반상(10.10) 신용화(10.10)
 민 엔(10.15) 윤치호(10.16)
 하경원(10.18) 지태호(10.22)
 장길한(10.24) 장정현(음10.27)
- ☑ 구평1공장**
 장상권(10.01) 최영운(10.02)
 이호진(10.05) 강기조(10.10)
 도밍고(10.10) 문용수(10.11)
 오영준(10.11) 허원범(10.13)
 황동춘(10.13) 박봉준(10.14)
 현재구(10.16) 이경욱(10.18)
 서화운(10.19) 진성은(10.21)
 김미화(10.22) 류지창(10.23)
 옥영철(10.23) 양상구(10.27)
 김도현(10.28) 이경노(10.28)
 김영수(10.30) 이준희(10.30)
- ☑ 영암공장**
 장진실(10.10) 정봉주(10.16)

임사 기념일

- ☑ 본사**
 김영민(10.01) 이영우(10.01)
 정재현(10.01) 진병석(10.01)
 장호길(10.02) 김희태(10.10)
 장호신(10.12)
- ☑ 1공장**
 레이마크(10.01) 구태현(10.10)
 임정오(10.12) 고재석(10.24)
 박경재(10.24)
- ☑ 2공장**
 정상규(10.21) 유원중(10.29)
 오진우(10.30)
- ☑ 3공장**
 지기환(10.01)
- ☑ 구평공장**
 강필진(10.01) 김성곤(10.01)
 이성용(10.01) 이철호(10.04)
 키 엔(10.04) 손판석(10.08)
 이동열(10.08) 성기욱(10.09)
 성정모(10.09) 이현철(10.09)
 임우택(10.13) 구진호(10.15)
 장정현(10.29)
- ☑ 구평1공장**
 강석운(10.01) 강신근(10.01)
 김경태(10.01) 김선호(10.01)
 김영엽(10.01) 김원욱(10.01)
 김점례(10.01) 김정숙(10.01)
 김현숙(10.01) 노희수(10.01)
 류승수(10.01) 박경자(10.01)
 박옥선(10.01) 박철현(10.01)
 박필용(10.01) 방재성(10.01)
 손정훈(10.01) 신창현(10.01)
 안정호(10.01) 여호정(10.01)
 오승대(10.01) 오승현(10.01)
 옥영철(10.01) 이미연(10.01)
 이재호(10.01) 임중선(10.01)
 정재희(10.01) 최병준(10.01)
 최부영(10.01) 강성훈(10.06)
 고매향(10.06) 김봉원(10.06)
 김성우(10.06) 김수광(10.06)
 루이스(10.06) 신혜숙(10.06)
 안 디(10.06) 정원덕(10.06)
 장연정(10.06) 하경민(10.06)
 하금선(10.06) 오신애(10.07)
 데니스(10.08) 윤성근(10.08)
 노근민(10.10) 박옥자(10.10)
 이영철(10.10) 주영임(10.10)
 한성수(10.10) 김태호(10.12)
 이재근(10.14) 이호진(10.14)
 김종석(10.15) 양한조(10.15)
 신승진(10.16) 박봉준(10.23)
 오세만(10.23) 이창현(10.23)
 임용운(10.23) 주상기(10.23)
 최규진(10.23) 최민수(10.23)
 황규섭(10.23) 김용호(10.24)
 장세렬(10.26) 김영수(10.27)
 박상준(10.29)
- ☑ 영암공장**
 김효희(10.06) 서순일(10.09)
 이규현(10.09)

나누는 글

매일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매일을 마치 그것이 당신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인 것 같이 살아라.”

참으로 힘찬 말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매일 매일을 내 생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 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최고도의 성실과 정열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없이 진지한 인생의 자세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큰 희망과 많은 기대와 진지한 계획과 더할 수 없는 충실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요, 잘해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합시다. 빈틈없는 마음과 절실한 감정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의 하루를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열애(熱愛)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깊은 의미를 찾고 일 분 일 초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마치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마음이짐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동시에 마지막인 날입니다. 절대로 두 번 있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일이니 결코 오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인 것처럼 성실과 정열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